

모든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필요하다

벤 호건



미국의 아버지의 날에 대해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그 역사를 보면 된다. 아버지들을 기리고자 정한 날들이 많았지만 오직 아버지의 날만이 1972년에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반면, 어머니의 날은 이 보다 훨씬 전인 58년이나 앞서 1914년에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그 기간동안에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고, 달 착륙이 이루어졌고, 평등권 운동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적인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기념일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느끼고 있는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머니의 날에 자여들은 어머니들과 함께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은 많은 선물로 놀래주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온다. 이날 설교는 어머니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는 꽃을 준비해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날에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전화 혹은 텍스트를 하거나, 양말 몇 짝 혹은 넥타이를 주거나 하고 끝내기 일쑤다. 더우기, 설교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지적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략 이것이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의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나는 네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한다. 우리 아버지는 세 아들들을 모두 어른으로 양육했다. 우리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이나 주말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열 서너시간을 농장이나 학교들의 전기공사를 도왔다. 주일 마다, 다른 아이들은 성경클래스와 예배에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문을 여는 한은 당신도 가셨고, 우리들도 반드시 가게 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 규칙을 어기면—대부분 나였지만—매를 아끼지 않으셨고, 즉시 훈계를 주셨다(잠언 13:24). 그는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

내 경우에 한정된 얘기일 수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한다. 그런 가정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는 다르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의 역할을 대신한다. 오해하지 말라.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들보다 교회에 더 가기 싫어하는 가정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더 안 좋은 것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다(에베소서 5:25).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날을 그닥 반기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날이 그들에게 그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의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점들을 생각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은 아픈 날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프고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도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이런 아버지를 주시고, ... 저들에게는 저런 아버지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는 일찌기 가정을 버렸고, 오직 강한 어머니만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실 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갖고 있는 여러 흠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주셨다.

만일 친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주심으로써 그 부족함을 메워주셨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어머니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 만일 조부모가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셨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아버지들을 주셨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곳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가족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주신다.

신약성경에서 특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이다. 그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다닐 때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해서 고린도 교회와(고린도전서 4:17)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일했다(빌립보서 2:19). 에베소에서는 그는 상주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했다(디모데전서 1:3). 그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자신의 참된 믿음의 자녀라고 불렀다(디모데전서 1:2).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성경은 디모데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글들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고는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디모데후서 1:5). 더우기 사도 바울도 친아들이 없었기에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자식으로 삼았을 것이다(고린도전서 7:7-8).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들에게 없던 가족을 찾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번 주말 아버지의 날을 맞아 어떤 감정을 가질 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만일 당신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 아버지는 당신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 아버지는 당신이 영원히 분향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 그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믿고 자녀가 될 것인가는 당신의 결정이다.